

부귀면, 진안 인구증가 견인

지난해보다 137명 증가한 2922명... 정주여건 좋아져 3000명 시대 눈앞

진안군 부귀면 인구가 2014년부터 꾸준히 늘어나면서 진안군의 인구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21일 부귀면에 따르면 올해 12월 15일 기준 부귀면 주민등록상 인구는 2,922명으로 2013년 12월말 기준 2,793명 대비 129명이 증가했다.

올해에만 41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진안군 주민등록상 인구는 12월 7일 기준 지난해보다 137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목할만한 것은 부귀면의 인구가 2004년 3,035명 이후, 13년만에 2,900명선을 회복했다는 것.

부귀면의 꾸준한 인구유입 요인은 전주권과 가까운 진안의 관내이라는 지리적 여건을 먼저 꼽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부귀면은 향후 3년 안에 500여명 이상의 추가 증가 요인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부귀면의 건축신고는 96건으로 내년 말에 인구 3,000명 시대를 맞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축신고와는 별개로 봉암리 미곡지구 등 139세대에 달하는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다. 현재 민간주도로 조성 중이거나 계획 중인 소규모 전원택지 조성지도 10곳 이상이다.

특히 완주 소양~진안 소재정 간 국도개량 개량사업이 완공되면 인구증가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다는 해발 400m에 위치한 자연환경을 꼽을 수 있다.

“부귀는 열대야가 거의 없다”, “우렁이 농법을 비롯한 친환경 농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다”, “모래재 메타세쿼이아길, 부귀 편백숲과 운장산 자작나무숲 같은 힐링자원도 풍부하다” 등 부귀면에 자리잡은 귀촌인들이 꼽은 부귀면의 매력들이다.



진안군 부귀면 인구가 2014년부터 꾸준히 늘어나면서 진안군의 인구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사진은 부귀면에 자리잡은 해오름 전원주택지 전경

김요섭 면장은 “진안군에서 유일하게 부귀면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2018년 명정목표를 인구 3,000세대로 정하고 인구유입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인구증가 추세가 더욱 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부귀면은 늘어나는 인구규모에 맞춰 문화·체육·보육 등 각종 공공시설과 생활편의시설 등의 정주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김요섭 면장은 “진안군에서 유일하게 부귀면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2018년 명정목표를 인구 3,000세대로 정하고 인구유입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인구증가 추세가 더욱 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부귀면은 늘어나는 인구규모에 맞춰 문화·체육·보육 등 각종 공공시설과 생활편의시설 등의 정주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김요섭 면장은 “진안군에서 유일하게 부귀면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2018년 명정목표를 인구 3,000세대로 정하고 인구유입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인구증가 추세가 더욱 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무주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첫 수료생 배출

서울시민 예비 귀농인 8세대 9명... 8월부터 4개월 살아보며 귀농·귀촌 자신감 키워

무주군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시도했던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첫 수료생(8세대, 9명)을 배출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귀농·귀촌을 미리 체험해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예비 귀농인을 모집하고 무주군이 귀농·귀촌시설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진행했다.

무주군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생들에게 공동경작지, 시설하우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마을만들기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사)무주군 귀농·귀촌협의회가 영농활동(농산물 가공 등)과 선진 농장방문 등을 진행하며 현장 기술교육(농기계 작동 등)을 함께 병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은 지난 9월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시, (사)무주군귀농귀



무주군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시도했던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첫 수료생 8세대, 9명을 배출했다.

촌협의회와 함께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및 교육을 실시해 왔다. 수료생들은 “시골 가서 살아야겠다”고 처음 무주에 왔을 때는 막막하더니 주민들 속에 섞여서 농사일을 배우고 살면서 자신감이 생겼다”라며

“직접 재배한 배추로 김장을 담근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전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내내 참가자는 1월 초부터 무주군 홈페이지와 마을만들기사업소를 통해 방문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태홍

서바이벌

레프팅/카약
스키/보드

ATV / 버기카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 일피린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 국제대회 디수 참가 및 우승
-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출전
- 국가대표 코치 역임
- 일본 신타포 국제대회 참가
-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NSL/NSL2)취득

-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역 취득
-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 연)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허진형 '무주 도전 골든 벨' 최후1인

전보경 금상 김경민 은상·이연지 동상

무주군 관내 고등학생들의 지성을 뽐내는 무주 도전 골든 벨이 7회를 맞아 지난 20일 무주체육문화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는 무주고와 무중고, 설천고, 안성고, 푸른꿈고 등 관내 5개 고등학교 학생 100명이 참가해 △무주군 관내 고등학교에서 공동 출제된 기본 지식, △내 고장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해도, △시사 및 교양 등에 관한 문제를 풀었다.

무주고등학교 2학년 허진형 학생(전북도 교육감상)이 최후의 1인으로 남아 장학금 200만 원을 받았으며, 금상(전라북도 교육감상)은 안성고등학교 1학년 전보경 학생이 차지해 장학금 100만 원을, 은상(전라북도 교육감상)은 설천고등학교 1학년 김경민 학생(장학금 70만 원)이, 동상(전라북도 교육감상)은 설천고등학교 2학년 이연지 학생이 차지해 장학금 50만 원을 받았다.

무주고등학교 3학년 장한열 학생과 2학년 이인성 학생은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함께 상금 20만 원씩을 받았다.

무주고등학교 2학년 이규형 학생과 설천고등학교 3학년 오윤정 학생, 설천고등학교 1학년 이일 학생과 무주고등학교 1학년 이경민 학생, 무주고등학교 2학년 김연현 학생, 푸른꿈고등학교 1학년 차정민, 강재한, 정현서 학생, 무주고등학교 3학년 서연희 학생은 무주교육발전협의회장과 장학금 각각 20만 원을 받았다.

이날 지급된 장학금은 총 740만 원으로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을 비롯한 관내 기업과 사회단체, 개인들이 후원해 그 의미를 더했다.

최후의 1인이 된 무주고등학교 2학년 허진형 학생은 “고등학생 때 만들 수 있는 추억을 위해 출전했는데 내 이름과 우리학교의 명예를 같이 빛내게 돼 너무 기쁘고 흐뭇하다”라며 “오늘의 경험과 자신감이 앞으로 남은 고등학교 생활에 힘이 되고 나중에 대학생, 성인이 돼서도 큰 용기가 될 것 같다”라고 전했다.

무주 도전 골든 벨은 무주군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고등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해 학력신장과 교육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해마다 개최돼 지역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무주교육발전협의회 강만기 회장은 “학생들이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준비하고 도전했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자리였다”라며 “준비하는 입장에서 무주 도전 골든 벨이 우리 학생들이 꼭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 도전 골든 벨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무주교육발전협의회에서는 해마다 관내 모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수대학탐방 프로그램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 매아리

진안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 전라북도 도지사 표창 수상

진안군은 21일 진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허은하)에서 추진한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이 전라북도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아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위기상황에 놓였을 때 주변의 식당이나 편의점 등을 찾아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곳'과 '위험한 곳'을 사진에 미리 알고 스스로 지도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진안경찰서와 협력하여 성폭력 예방교육과 현장조사를 통해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아동 스스로 위험공간과 안전공간에 대한 선별능력과 범죄 대처능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건강증진사업 캠페인

장수군은 지난 13일, 15일, 21일, 세 차례에 걸쳐서 장계파출소 사거리, 장수읍(구)파출소 로터리, 반암면사무소 앞 및 3개 읍·면 시장일원에서 길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금연분위가 확산, 자기혈관숫자알기(정상혈압120/80, 공복혈당 100미만),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을 향상을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수 한우와 사과 캐리커를 활용해 제작한 인형탈을 장수군보건의료원 직원 10여명이 직접 착용하고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과 관심을 얻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안성면, 복지허브화 협약

무주군 안성면행정복지센터는 21일 센터 내 소회의실에서 안성파출소, 안성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역에 분포해 있는 복지사각지대와 자원을 발굴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각 기관의 자원과 시스템이 연계된 협력활동(요보호대상자들의 안전확보와 범죄예방,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방치활동 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들이 복지상담과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고위험군에 속하는 가정(술조사,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등)을 방문할 때 경찰관이 동행해 안전한 업무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우체국 집배원과 경찰관이 각자 업무를 수행하다 취약계층을 발견하면 즉시 제보할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연계 체계를 구축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산서면 용수개발사업 시행 중

12월 준공 예정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는 21일 2018년 영농대비 용수확보를 위해 선제적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진장지사는 2018년 세계기상기구(WMO) 발표에 따라 현재 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기 시작하여 올겨울은 비가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2018년 이앙시기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장수군 산서면에 대하여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저수량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용수확보를 위해 중형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11월 착공해 1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교준 지사장은 “올해 가뭄에도 불구하고 풍년농사를 이룬 것은 용수확보를 위해 직원들의 발빠른 대처와 농업인의 땀과 정성 덕분”이라며, “2018년에도 안전영농을 위해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 절약을 생활화하여 저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